

Scripture of Truth Series

존재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Being and The Problem of Pain

마음보다 크신 분 하나님

이 우 진 지음



The Problem of Being and The Problem of Pain

By **Woojin Lee**

Korean Published by Permission

2020 by The Scripture of Truth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존재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편저자 | 이우진

펴낸이 | 이우진

편집디자인 | 김화영

초판발행 | 2020. 2. 28

펴낸곳 |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97-1번지
센타프라자 제505호

전화 | 010-2322-1611

홈페이지 | <http://www.bbch.co.kr>

카페 | <http://cafe.naver.com/bbckjb>

(이 책의 PDF 파일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ISBN 97911-86022-31-3

정가 2,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But I will shew thee that
which is noted in the scripture of truth...

(Daniel 10:21a)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다니엘서 10:21a)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 Christ Jesus Publications.

존재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마음보다 크신 분 하나님

사람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입니다. 존재의 문제가 땅속에 있는 뿌리와 같다면 고통의 문제는 땅 위에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볼 때 뿌리가 아닌 가지를 봅니다. 뿌리는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같지만 그 고통의 문제의 원인은 뿌리인 존재의 문제에 있습니다.

존재의 문제

많은 철학자들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할 점은 “인간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지점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다치바나 다카시는 “생, 사, 신비체험(生, 死, 神祕體驗)”이라는 책의 머리말에서 소재식(所在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재식은 의학용어로 병원에서 환자의 의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의 의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몇 가지 단

순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할 때는 환자에게 “여기가 어디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상식적인 수준의 답을 하면 의식이 정상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름을 대면 정답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보자면 자신의 이름을 대는 것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답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름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 뿐, 그 본질을 말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확실성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은 생각(의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고, 자크 라캉(Jacques Lacan)은 그런 의식(자아)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학자들은 존재의 문제를 인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고 그러한 시도는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간에서부터 존재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코 끝이 나지 않고, 결국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존재의 문제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결과라면 하나님은 원인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고 이것이 인간의 존재에 엄청난 의미를 준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수단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많 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나 정의 같은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중요 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정 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과물입니다. 인간 존재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 다. 저는 스스로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 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습니 다. 저의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부모님이 저의 원인이고, 저는 부모님이 만 든 결과물입니다. 계속 그렇게 존재의 원인을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원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회의론자인 버틀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는 모든 사람의 존재에 대 한 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 나?” 라는 질문에 이르자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 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러셀의 문제는 잘못된 전제에 있습니다. 그가 알던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 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몰랐 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닌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이 없는 분입니다. 원인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 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하나님도 결과일 뿐이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질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체에 한정해서 생각해봐도 굉장히 복잡한 유기체이며 디자인과 기능면에서도 매우 놀랍습니다.

다섯 번 접힌 A4용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구도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접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세포 안에 있는 20만 개의 아미노산 고리들 중 단 하나도 우연히 생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명체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연히 생길 수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우연의 반대 개념은 계획입니다. 가장 작은 중성자와 양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계되어 있고 광대한 우주도 모두 설계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뒤에는 누군가가 그것을 설계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TV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부품들로 TV를 만들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믿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활한 우주도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뒤에는 의도와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은 비열이 높습니다. 끓는점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물의 비열이 낮다면 끓는점이 낮아서 우리가 약간만 움직여도 끓어올라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온도조절장치입니다. 물이 액체에서 얼음으로 변하려면 열을 잃어야 하고 반대로 수증기로 변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바다는 태양의 열기와 추위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 줍니다. 지구 자체도 누군가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크기가 작았다면 수성처럼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대기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컸다면 목성이나 토성처럼 수소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매우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조금만 가까워도 인간이 생존할 수 없도록 온도가 상승할 것이고 조금만 멀어져도 생존하지 못할 정도로 하락할 것입니다.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달의 존재도 태양계에서 유일하고 지축의 경사로 인해 계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결국 본질적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어딘가에 원인도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설계하여 만든 창조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의 존재가 생각만큼 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의 문제

존재의 문제에서 고통의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당연히!), 문제는 인간이 물질과 “물질이 아닌 것”, 즉 비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육체와 마음을 포함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제한적이고 유한한데 마음은 제한이 없고 무한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그 육체 안에 있는 마음이 크기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늘을 날 수 없지만 마음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벌 수 있는 재물은 한계가 있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젊고 건강한데 육체는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여 늙고 병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육체와 마음이 이렇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단차, 즉 “간극”이 존재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은 이러한 간극 때문에 생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서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도 육체와 마음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도 모두 육체와 마음 사이의 간극에서 온 고통입니다.

이러한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인간이 고통 받게 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6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정말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는 교회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자기 아내를 죽게 내버려두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아내의 육체는 유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은 무한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렸다면 고통이 없었을 텐데 아내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즉 육체와 마음의 간극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아내가 암으로 사망했다든지, 혹은 아프리카에서 무죄한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이미 죽어 이 세상을 떠난 아내와 굶어 죽은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악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온전히 선하지는 않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제

인간은 유한한 육체에 무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설계한 존재가 있는데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육체

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한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도 무한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은 각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 모두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다면, 인간의 존재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고통의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모든 고통은 사라져 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상처받은 마음이 다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과 별개로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죽음 이후의 영원에서는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두 증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 18:16). 하나는 성경이며 다른 하나는 수학입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영원에서는 이생의 고통이 어떻게 모두 사라지는가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y=x(3차)+2x(2차)+3x(1차)+4$ 라는 식을 미분하면 $y' = 3x(2차)+4x(1차)+3$ 이 되는 것입니다. 즉, 원래의 식에서 미분을 하면 차수가 하나씩 내려가게 되어서 삼차식은 이차식이 되고 이차식은 일차식이 되며 일차식은 상수가 되고 상수는 0이 됩니다. 원래의 식에서는 상수가 몇이 되든지 상관없이 미분을 하면 모두 0

이 됩니다. 즉, $y=x(3차)+2x(2차)+3x(1차)+4$ 와 $y=x(3차)+2x(2차)+3x(1차)-3$ 은 서로 다른 식이지만 미분을 하면 모두 $y' = 3x(2차)+4x(1차)+3$ 가 됩니다. +4도 없어지고 -3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에서의 행복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무한대 분의 상수는 0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큰 수를 분자로 놓는다 할지라도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그 수는 언제나 0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식에서 상수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차원이 바뀌는 것은 미분과 같습니다. 그렇게 차원이 바뀌면 고통이라는 상수는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미분과 마찬가지로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고 상수는 이생의 일인 고통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생을 마치고 가게 될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곳의 주인은 영원한 분이시며 그곳에는 달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영원에서의 행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아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고통(상수)을 0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그 존재를 설계하고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성령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유한한 육체 안에 무한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무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

은 아닙니다. 이 세상과 당신과 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육체보다 큼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 구멍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만나면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답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넘었고 성경을 가르친 지는 26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독자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만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거나 거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183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큰 지출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믿고는 싶은

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이렇게 해 보십시오. 일 년 동안 하루에 삼십분씩 신약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삼십분이면 6장 정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일 년 동안 읽으면 신약성경을 4~5번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읽기 전에 잠깐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 제 마음에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지나친 투자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자신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은이 : 이우진**

이우진 목사는 1974년 4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나 줄곧 여의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펜사콜라성경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균관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1990년 7월 중순 호주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1994년부터 문서사역을, 그리고 1997년부터 교회와 신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우진 목사는 펜사콜라성경신학원과 킹제임스성경신학원에서 10여년에 걸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월간 강단의거성과 도서출판 킹제임스에서 편집장으로, 그리고 진리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겼으며, 50여 권의 책을 번역하거나 저술했습니다. 그는 2007년에 도서출판 진리의성경을, 그리고 2014년에 분당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www.bbch.co.kr